

삼성SDI, 에너지솔루션 조직 폐지

조직개편, 소재 사업부문도 ... 4개 사업부문으로 시너지 극대화

삼성SDI가 에너지솔루션 부문과 소재 부문의 양대 부문 체제를 폐지한다.

삼성SDI는 12월10일 에너지솔루션 및 소재 부문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을 발표하고 소형전지와 중·대형전지, 케미칼, 전자재료 등 생산제품 단위 사업부문 체제로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삼성SDI 관계자는 “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시너지 창출을 통해 소재 및 에너지 토탈솔루션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라며 “책임 경영체제를 강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합 시너지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7월 제일모직의 소재 부문과 합병하고 통합법인을 출범한 삼성SDI는 에너지솔루션 부문과 소재 부문의 이원체제로 운영해왔으며, 홈페이지도 삼성SDI 에너지솔루션 부문과 소재 부문을 각자 따로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이사도 에너지솔루션 부문과 소재 부문 각자 대표 체제였으나 2015년 사장단 임원인사에서 조남성 사장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정리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12/11>